

海印寺 伽藍의 象徵性에 關하여

- 특히 風水地理的인 內容을 中心으로 -

李 相 海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I. 서론

한국의 삼보사찰 중의 하나인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에 위치한 海印寺는 비교적 창건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찰에 속한다. 해인사의 창건에 대한 사실은 『三國史記』에 신라 애장왕 3년(802)에 “가야산 해인사를 創하다”(創 伽倻山海印寺)라고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¹⁾ 그리고, 崔致遠이 공양왕 4년(900)에 쓴 「新羅伽倻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東文選』卷64)와 고려 태조 26년(943)의 문헌이라고 전하는 「伽倻山海印寺古籍」(『朝鮮寺刹史料』上)에는 해인사 창건 경위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은 모두 해인사가 順應과 利貞 두 스님에 의해서 신라 왕실의 도움으로 창건되었다는 내용에서 일치하고 있다.

창건 당시 해인사는 절터가 험하여 규모가 작았다고 한다. 그 후 약 100년이 지난 효공왕 1년(897) 가을에 중창할 것을 합의하고, 일차로 寺域을 확장하였으며,²⁾ 다시 930년 경 고려 태조 때 “옛 寺宇를 重新하였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고려 태조 때에 이르러 해인사는 창건이후 비교적 규모가 크게 확장되며 새로워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후 해인사는 조선 초기에 들어서서 다시 크

게 확충된다. 조선 태조 때에는 정중담이 重營(1393년)되고, 高麗大藏經板이 봉안되며,³⁾ 세조 3년(1458)에는 임금이 명을 내려 板殿 40칸을 다시 짓게 한다. 특히, 해인사가 지금의 규모로 확충된 시기는 성종 12년(1481)에서 21년(1490)간이다. 이때 판전 30칸을 짓고 普眼堂이라 이름하였고, 毘盧殿을 다시 지어 大寂光殿이라 하였으며, 그 외에도 약 30동에 이르는 160칸의 건물을 완성하고 사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⁴⁾

그 후 해인사는 숙종 21년(1695), 숙종 22년, 영조 19년(1743), 영조 39년(1763), 정조 4년(1780), 순조 17년(1817), 고종 8년(1871)에 이르는 동안 무려 일곱 차례의 화재를 겪게 된다. 특히 순조 17년에 이르러서는 아주 큰 불이 나서 수백 칸의 당우가 타 버렸다. 그 때 薺月스님이 중심이 되어

2). 최치원: 「新羅伽倻山海印寺結果場記」에 畫界四周 悉數如左 諒所謂起屋三層 昇樓四級 好是高山 易仰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태조 실록 7년(1398)에는 강화에 보관되어 있던 대장경을 서울의 支天寺로 옮겼다는 기록이 나오고, 정종실록 원년(1399)에는 해인사에 대장경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해인사에는 태조때 고려대장경판이 移運 봉안되게 되고, 이 때 부터 법보종찰로 유명하게 되었다.

4). 이 기록은 성종 22년 曹偉가 짓고 쓴 「海印寺重修記」에 있다.

1). 「三國史記」卷10 哀莊王 3年 8月條.

경상감사 金魯敬의 도움으로 절을 증창하였는데, 해인사의 주불전인 지금의 大寂光殿은 이 때 지은 것이다. 따라서, 팔만대장경판이 있는 판전 건물을 제외한 해인사의 거의 모든 건물은 순조 17년 이후에 지은 것이다. 그러나 가람의 기본 배치 골격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⁵⁾ 그 후 해인사는 화재를 예방키 위한 방편으로 새 건물들을 풍수지리적인 내용과 습합시켜 세웠거나, 또는 풍수지리적인 상징체계로 공간을 해석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본 연구는 해인사의 이러한 형국, 배치, 건축, 세부 사항 등이 풍수지리적 상징체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II. 본론

II-1. 大形局: 地勢 및 地形

海印寺는 해발 1,430m인 伽倻山 서남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가야산 산줄기를 보면, 白頭大幹이 백두산에서 뻗어 내려와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을 지나 덕유산(1,614m)에 이르러 왼줄기는 서남쪽의 지리산으로 향하고, 다른 한 줄기는 동쪽으로 뻗으면서 대덕산(1,290m), 수도산(1,317m), 단지봉(1,327m)을 거쳐 가야산에 이르러 크게 산세를 이루었다. 가야산의 主峰 능선은 상왕봉(1,430m), 두리봉(1,133m), 남산(1,113m), 단지봉(1,028m), 남산제1봉(1,010m), 매화산(954m) 등과 이어져 있는데, 해인사는 그 중턱에 주변 산세가 겹겹이 둘러싼 곳에 자리잡고 있다. 해인사가 들어선 가야산은 건너 맞은편에 있는 남산에서 바라보면 마치 연꽃 봉우리로 보이고, 해인사는 봉우리 속, 즉 꽃심에 앉은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

해인사가 자리잡은 가야산 형상을 찬탄한 기록은 많이 있다. 일찍이 최치원은 “산의 신령스럽고 빼어남이 부처님(妙德)의 이름과 조화되고 땅의 형태는 淸涼의 勝勢와 비슷하여 다섯 상투를 잘

라 짠 데에서 한 머리카락을 뽑아내었다”고 하였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古記를 인용하며 해인사를 가리켜 “가야산 形勝이 천하에 뛰어났고 地德이 海東에는 짝이 없으니 참으로 修道할 곳이다”고 하였다. 또한,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경상도 一道에는 火星이 없다. 오직 합천 가야산은 빠른 돌이 줄을 잇달아서 불꽃같으며, 공중에 따로 솟아서 극히 높고 또 빼어났다.”고 하였다.⁶⁾



그림 1. 가야산의 위치 (출전: 대동여지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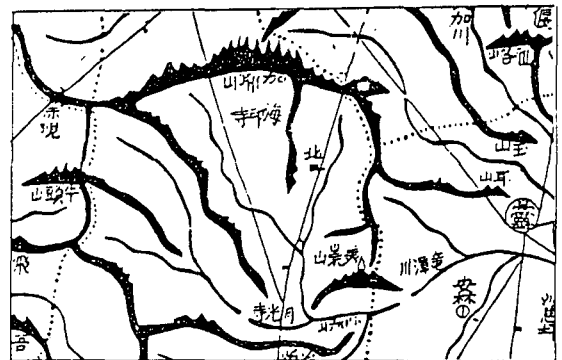


그림 2. 가야산의 지세 (출전: 대동여지도)

5). 해인사의 연혁에 대하여는 李相海 編 「海印寺 建築圖集」(1994)을 참고할 것.

6).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편 (李真成 譯, 乙酉文庫 62, 을유문화사, 1990(1971), p. 218..

특히 해인사는 외부세계에 폐쇄된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 위치하였는데, 이를 두고 이중환은 해인사가 들어선 가야산을 “옛부터 三災가 들지 않는 곳이라 한다.”고 하였으며,7) 「균여전」에서는 “그 山形은 천하에 絶勝하고 地德은 海東에 으뜸이니 가히 精修之地라고 할 것이며 福利를 누리는 곳으로 더 비길 데가 없다. 그러므로 國家崔要의 문서를 入安鎭兵케 하고, 春秋로 四天王法席을 행하고 또 다름없이 연말에 祈愿을 하도록 하였.”고 칭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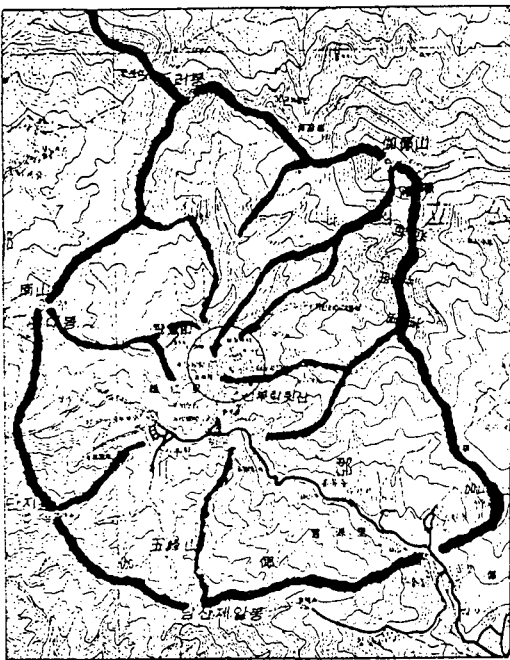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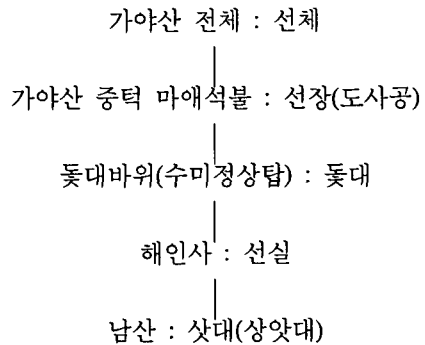


그림 3. 해인사주변 지세도

즉, 해인사는 三災不入의 터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국가최요의 문서를 비치할만한 곳이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실록을 해인사에 비치한 적이 있고, 조선초기이후 현재까지는 고려대장경판을 봉안하고 있다. 『高麗史』에는 “... 명종실록을 편찬하여 史館에 비치하고 또 한 부를 해인사에 비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8) 그런데, 고려실록 부분을 해인사에 비치하였다는 기사는 『고려사』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 사실을 두고 김상

기는 “이것으로써 실록 부분을 해인사에 移藏한 시초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실록 가운데에도 태조 이래의 중요한 것이 많은데 당시 撰修한 명종실록만 안전을 위하여 부분을 만들어 해인사에 까지 갖아다가 갈마두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니 차라리 역대실록 보관의 예에 따라 명종실록 부분도 해인사에 藏置하게 된 것이 특히 史上에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 실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보관할 환경 조건이 좋다는 평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곧, 조선 초기에 팔만대장경판을 해인사로 옮길 때에 이를 갈마 두 기존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지를 한 가야산의 지세와 형국을 두고 行舟形局(열배형국)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이를 풍수지리적인 상징체계로 풀이하기도 한다. 즉, 가야산은 船體, 해인사는 船室, 가야산 中峰의 마애석불은 船長(都沙工), 남산(매화산)의 崎岩들은 샷대(상앗대), 장경각 뒤쪽의 바위는 돛대로 해석한다.10)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 8). 『高麗史』 世家 제22 고종 14년 9월 庚辰條.
- 9).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1985), p. 714.
- 10). 해인사가 위치한 가야산을 행주형국으로 설명한 문헌들은 많다. 그 중에서도 徐貞任: 『韓國古代伽藍造景研究: 特히 海印寺造景을 中心으로』 (螢雪出版社, 1975)와 李智冠: 『伽耶山海印寺誌』 (伽山文庫, 1992), p. 640, p. 642에 잘 설명되어 있다.

7). 위의 책, p. 219.

II-2. 小形局: 配置 및 建築

해인사의 形局은 가야산 상봉이 서남으로 뻗어 내려오는 남녘 산 중턱에서 그 능선이 두 맥으로 갈라져, 한 맥은 향로봉을 이루어 동남쪽으로 해인사 입구 吉祥塔이 있는 곳에 이르렀고, 다른 한 맥은 해인사 서남쪽으로 흘러들어 學士臺를 이루면서 그 아래로 일주문 서남쪽 곁에 꼬리를 풀고 있다. 그 가운데로 주산인 우두봉이 서남쪽으로 뻗었는데, 그 봉우리의 남쪽 중턱에 해인사가 자리잡고 있다. 즉 해인사는 左靑龍격인 향로봉 능선과 右白虎격인 학사대 능선에 에워싸인 소형국에 자리잡고 있다.

불교 사찰은 각 종파마다 그에 맞게 건물을 배치하고 또 그에 합당한 부처를 주불전에 봉안한다. 본래 해인사는 華嚴寺刹로 창건되었다. 이 사실은 사찰의 명칭인 해인사에도 반영되어 있고, 주불전인 대적광전에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모신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海印”이란 華嚴經의 “海印三昧”에서 유래된 표현으로써, 바다에 온갖 사물의 그림자가 印影처럼 비치듯이 부처님의 지혜바다에는 온갖 萬法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즉 해인사는 “화엄경”의 진리에 의지해 수행하여 화엄의 사상을 온 누리에 천명하려는 원력으로 이루어진 사찰임을 뜻한다.¹¹⁾

그런데, 지금은 해인사 창건 당시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伽藍配置나 建築形式과 연관되는 흔적을 찾기 힘들다. 다만, 창건 당시 가람 배치 형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음을 지형, 지세를 이용하여 건축을 얹힌 방식에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해인사의 寺域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효공왕

11). 해인사를 창건한 순웅은 766년에 入唐하였는데, 입당하기전 浮石寺를 창건한 義湘의 浮石嫡孫인 神琳에게 배웠다고 한다. 순웅이 신림에게 배웠다는 사실은 곧 해인사가 부석사의 학풍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 신림은 불국사에 머물기도 하였으므로, 해인사는 간접적으로 불국사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해인사가 華嚴寺刹로 창건되었으며, 신라왕실과 연관되었음을 뜻한다.

1년(897) 정월에 해인사 사역을 확장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최치원이 898년에 쓴 「新羅伽藍山海印寺結界場記」가 있다. 이에 의하면, 해인사에서 이루어진 결계는 효공왕 1년 해인사를 중창하면서 사찰의 4면을 구획하여 다시 책정하고 당우를 쇄신하여 魔軍의 침입을 경계하고 持律에 힘쓰기 위하여 이루어졌다.¹²⁾ 최치원은 이 기문에서 해인사를 금강경처럼 단단하고 좋은 명당에 우뚝 솟은 옥 같은 사찰이라고 한 뒤, 마음을 깨끗이 하고 戒로써 걱정을 방지하여 잡귀의 방해를 피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해인사 모습을 알 수 있는 비교적 후대에 속하는 자료로는 조선시대에 펴낸 『新增東國輿地勝覽』에 해인사를 노래한 權近의 시가 소개되어 있다. 권근은 해인사는 “바위 구렁 들고 돌아 한 가닥 길 통했는데, 만첩 산이 梵王宮을 웅위했다.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춰서 구역이 깊숙하고, 불전이 오래되고 행랑이 들렸는데, 제도가 웅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최치원의 기문이나 권근의 시로는 가람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해인사 가람배치와 건축 형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1675-1759)과 그의 제자 김윤겸(1711-1775)이 그린 海印寺圖가 있다. 이 그림으로 어느 정도 조선시대 후기 해인사 가람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인 배치 형식은 지금과 크게 호트러진 것은 없으나 그림 4, 5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적광전이 重層인 점과 구광루가 정면에 2층 누각을 T자로 덧대어 진입부를 구성하며 팔작지붕을 한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12). 結界는 범어 Simabandha의 譯語로서 僧尼가 과실을 범하지 않고 계율을 잘 지키기 위해 일정한 구역을 구획하여 제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단순히 堂塔과 가람의 영역을 정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또한 밀교에서는 修法을 행하는 장소에 魔障을 없애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 지역을 結界地라고 한다. 선종에서는 일정한 곳을 구획하여 수행의 도장으로 삼는 것을 結界라고 한다. 崔源植: 「新羅下代の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 49, 한국사연구회, 1985, p. 13.



그림 4. 정선이 그린 해인사전경도 부분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5. 김윤경이 그린 해인사도 부분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俞拓基(1691-1767)의 『知守齋集』에는 “寺之外三門 曰紅霞 次曰鳳凰 次曰解脫”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¹³⁾ 해인사에는 적어도 17세기에 일주문인 홍화문, 그 다음에 봉황문, 해탈문이 차례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들로 유추할 때 창건 당시 해인사는 지금의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전각들이 들어섰고, 그 후로도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기본 윤곽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사역이 확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해인사 가람을 이루는 건물들이 차지하는 땅의 크기는 남북으로 약 300m, 동서로 약 150m가 된다. 진입축을 따라 들어가면서 길게 생긴 땅인데, 마치 길쭉한 타원형과 같다.

여기에 들어선 건물들은 해인사 산문인 일주문을 지나 우측에서 좌측으로 조금씩 꺾이는 진입축을 따라 봉황문, 해탈문, 구광루, 정중삼층석탑, 대적광전, 판전, 수미정상탑 등의 차례로 들어서 있다. 그런데, 해인사에 들어선 건물들의 좌향을 보면 가야산 정상과 朝山인 남산에 약간 돌아앉아 있다. 다시 말하면, 해인사의 내맥은 남산(매화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해인사는 뒤로는 가야산 정상이 아닌 상봉에 기대어 있고, 앞으로는 남산을 바로 보지 않고 약간 오른 쪽, 즉 서쪽으로 향한 좌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 내용은 뒤에 해인사의 행주형국과 연관시켜 다시 고찰될 것이다.

해인사 당우들이 자리잡은 공간을 전체로 엮어 주며 영역을 형성하는 것은 일주문에서 시작하여 봉황문과 해탈문을 거쳐 마지막으로 대장경판전과 수미정상탑으로 이르는 中心軸이다. 중심축선을 따라 축대와 문, 또는 문루가 놓이며, 그 사이로 축을 이어주는 넓게 비워 둔 안뜰이 있고, 그 주변으로 당우들이 감싸며 늘어서 있다. 이러한 중심축선을 따라 진입하는 과정은 바로 脫俗의 과정이기도 한데, 해인사에 들어선 각기 성격이 다른 건축은 이 과정, 과정을 엮는 곳에 안뜰과 진입축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의 쉼을 만들며 크게 進入空間, 修道生活空間, 禮佛空間, 法寶空間 등

13). 『知守齋集』 卷 15, 「遊伽倻山記」.

네 영역으로 구분되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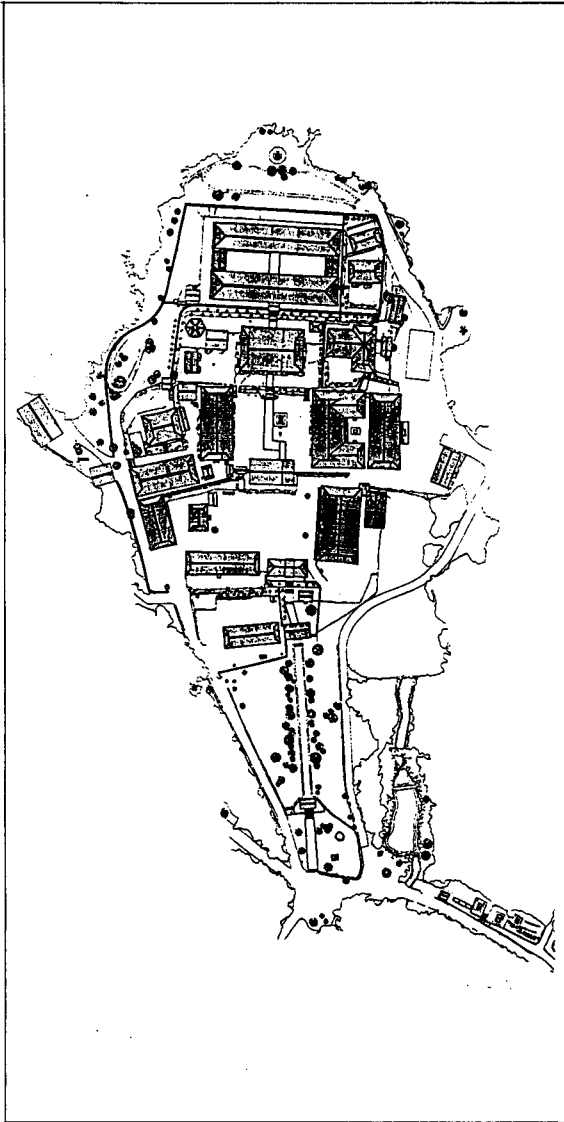


그림 6. 해인사 배치도(출전: 저자 실측)

진입공간 영역은 제1단인 하단으로서 일주문, 봉황문, 해탈문, 구광루에 이르는 영역인데, 해탈문에서 단을 형성한다. 수도생활공간을 이루는 영역은 구광루에서 시작하여 제2단인 중단을 만들어 정중삼층석탑 주변으로 궁현당, 심검당, 명월

당, 사운당, 경학원 등이 들어서 있다. 예불공간은 대적광전 앞 축대 위에서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제3단인 상단을 만들어 대적광전, 명부전, 응진전, 삼성각 등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범보공간을 형성하는 영역은 팔만대장경판을 봉안한 판전 건물 입구인 보안문에서 제4단인 최상단을 만들어 그 뒤에 수다라장, 범보전, 동사간판전, 서사간판전 등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이 영역들은 진입축을 따라 지표면을 형성하는 壇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각기 해당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해인사 가람 배치의 각 영역은 일주문에서 구광루까지를 欲界, 정중삼층석탑이 있는 일곽을 色界, 범당인 대적광전과 그 뒤 판전이 있는 일곽을 無色界를 표현하여 三界를 나타낸 것으로도 본다. 이는 각각 하단, 중단, 상단에 해당하는 영역이다.¹⁴⁾

이러한 영역은 해인사 가람을 이루는 지형 지세를 살펴보면, 땅을 돋운 곳과 깎아 낸 곳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람이 창건된 후 당우들이 어떻게 자라잡게 되었는가를 더듬어 알 수 있다. 즉, 해인사는 기본적으로 경사진 언덕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壇을 형성하여 조성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그 단들은 자연 지형 구배를 바탕으로 넓은 뜰을 만든 곳, 땅을 돋운 곳, 땅을 깎아 낸 곳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장경판전이 들어선 최상단 영역,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한 상단영역, 정중삼층석탑을 중심으로 한 중단영역, 그리고 구광루와 해탈문 사이의 너른

14). 옥계, 색계, 무색계 등 삼계를 이루는 축대의 높이는 그 세계에 맞게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해인사는 중창불사를 하면서 삼계를 형성하는 당우들을 새로 크게 짓고, 변경하여 이전의 공간 내용은 많이 훼손되었다. 사찰 자체가 시청각적으로 신앙의 대상세계라면, 그런 것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다. 향적: 「특집: 전통사찰건축에 대한 제고」(『海印』, 1994. 10.) p. 22. 화엄의 세계관으로 볼 때 해인사 대장경판전은 北方無憂世界에, 정중삼층석탑 동쪽의 관음전과 명월당은 東方滿月世界에, 해탈문 옆 사운당은 南方歡喜世界에, 궁현당과 西殿은 西方極樂世界에, 그리고 구광루는 中方華藏世界에 각각 대한다고 할 수도 있다.

공간인 하단영역은 넓은 안뜰을 형성한 곳에 땅을 돋구고 깎아서 단을 만들어 각기 성격을 달리 하는 공간 영역에 위계성이 확연하게 당우들이 들어서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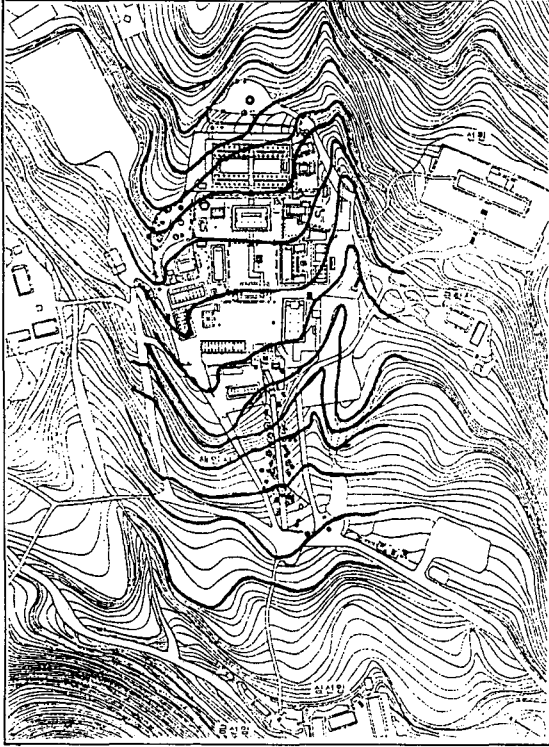


그림 7. 해인사 가람 일대 등고선 추정도

이러한 지형도를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예로서,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판전이 들어선 자리의 지형은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 아래로 열려 있는데, 원래의 자연 지세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건물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형에 수다라장과 범보전을 판전 안뜰을 중심으로 길게 평행 되게 두 동으로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대적광전, 구광루, 해탈문 등이 들어선 자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본래의 지형을 살려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해인사 가람을 복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데, 창건 당시 해인사는 대적광전 앞 정중삼층석탑 안뜰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⁵⁾ 즉 삼

층석탑 북쪽 축대 위에 범당인 비로전(지금의 대적광전)을 앉히고, 그리고 그 뒤 축대 위로 강당 건물(지금의 대장경판전 일곽 자리)을 앉혔을 것이다. 높은 축대 위에 강당 건물이나 범당 건물을 앉히는 방식은 화엄계 사찰인 부석사, 화엄사 등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다.¹⁶⁾ 그 후 시대가 바뀌면서 강당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비로전을 키워 대적광전으로 이름을 바꾸어 예불 빛 설법공간으로, 강당의 기능을 하였던 건물에는 고려실록 및 寺刊板을 보관하게 되고, 그후 조선조에 들어 고려대장경판이 옮겨지면서 이 장소를 확장하여 판전 건물로 확충하였을 것이다.¹⁷⁾ 특히 구광루가 건립되면서, 이 건물이 기능적으로는 강당과 범회 장소로 사용되고, 공간적으로는 해인사 중심공간을 형성하여 해인사가 가람 외곽에서는 폐쇄적이지만, 내곽에서는 주변 산세를 가람 일곽으로 끌어드리는 보다 개방적인 공간 형식을 한 가람으로 발전되게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靜的인 것을 깨뜨려 動的인 것을 인지케 하는 禪宗의인 방법으로서, 禪宗이 정착하면서 발전한 건축 공간 구성기법으로 볼 수 있다.

- 15). 서정임은 앞의 책(pp. 27, 37)에서 해인사는 왕과 왕후의 도움을 받아 현 대적광전 자리에 창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6). 김홍식: 「구례 화엄사 가람 배치의 미학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무애 이광노 교수 정년퇴임 기념 건축학 논총」, 1993. 8.). 허홍식은 고려의 풍수지리설이 화엄종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 근거로 해석을 한다. 「13세기 고려불교계의 새로운 경향」, (「한우훈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p. 265. 부석사, 화엄사, 해인사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17). 조선조 성종 때 판전 30칸을 짓고 普眼堂이라 이름하고, 毘盧殿을 다시 지어 大寂光殿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 이전까지 강당과 금당의 기능을 하였던 건물들을 이 때에 이르러 쇠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강당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그 자리에 판전이 확충되고, 금당의 기능이 예불공간으로 확대되면서 금당이었던 비로전을 고쳐 새로 크게 짓고 그 이름도 대적광전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해인사의 몇몇 당우들은 이 때 건물이름을 바꾼다.

풍수지리적으로 행주형국인 해인사는 이러한 지형 지세를 잘 이용하여 건축을 배치하여 가람 전체의 배치 형상이 마치 큰 바다에 배가 가고 있는 모양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진입축을 조금 꺾어 좌향을 틀게 하여 앞의 남산을 곧 바로 보지 않게 함으로서 가람이 주변 지세와 어우러지게 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II-3. 細部 內容

해인사의 가람배치를 두고 사람의 신체 부위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 즉, 본래 돛대바위가 있던 수미정상탑은 머리,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판전은 이마, 법당인 대적광전은 눈, 정중삼층석탑은 심장, 중문인 해탈문은 배꼽, 두 기둥으로 건립된 일주문은 발에 비유한다.¹⁸⁾ 이는 풍수에서 많은 내용들을 인체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 과도 통하는데, 실제로 해인사 가람을 구성하는 많은 구조물들은 풍수와 연관되어 해석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수미정상탑에서 일주문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須彌頂上塔

대장경 판전 뒤 지금의 수미정상탑 자리에는 본래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巨巖은 행주형국을 한 가야산 해인사 방주의 돛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돛대바위’는 일제시대인 1926년 대적광전 앞 축대공사때 깨어져 석재로 사용되고 그 밑 뿌리만 남아 있었는데, 파괴된지 60년이 지난 1986년에 돛대바위를 복원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수미정상탑을 세웠다.¹⁹⁾ 수미정상탑 뒤편에는 웅덩이가 있는데,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火氣를 막기 위한 것으로 뒤에 언급할 단오날 소금을 묻는 행사와 연관이 있다!

2). 大藏經板殿

해인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일곱 차례의 화재를 당하였는데, 대장경판전 일괄만은 불길에 미치지 않았다. 현재의 판전 건물은 지은 정확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고려대 장경판이 해인사로 옮겨진 시기인 15세기에 세워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전 건물은 해인사 가람 배치상 가장 중요한 건물중의 하나로서, 경판을 제대로 갈마두기 위한 과학적인 기법으로 건물이 세워진 것은 물론이고, 이와 연관하여 신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李重煥은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편에서 “...藏經閣 백이십간을 지어서 갈무리하였다. 지금 천여 년이 지났으나 판은 새로 새긴 것 같으며 나는 새도 이 집을 피해서 기와지붕에 앉지도 않으니, 이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서 당시의 판전 규모를 알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피해 가는 氣가 깃든 곳임을 짐작케 하여 준다.

지금의 수다라장과 법보전은 각각 정면 15칸, 측면 2칸의 건물이고, 동·서사간판전은 각각 정면 2칸, 측면 단칸의 건물이다. 이들 판전 일괄 건물들의 기둥 숫자를 보면, 수다라장과 법보전이 각각 48(16 x 3)개, 동·서간판전이 각각 6(3 x 2)개로 모두 108개가 된다. 그리고, 판전 일괄의 창살 숫자는 모두 1,080개이다. 또, 일주문에서 판전까지 올라오는 계단 단수는 모두 108단이다. 이러한 모든 세부 처리는 판전 건물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불교 교리와 연관되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갖게 하였다.

3). 大寂光殿

지금의 대적광전은 순조 17년(1817) 대화재를 당한 후 霽月스님이 1818년 경상감사 酉堂 金魯敬(1766-1838)의 도움으로 중건한 것을, 1971년 지관스님이 중수하였고, 1993년에 처마를 밖으로 더

18). 서정임: 앞의 책, p. 91.

19). 1972년에는 정부 당국에서 지금 탑(수미정상탑)을 세운 곳에 3500평정도로 대장경 판전과 똑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나 관계 인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적이 있다.

내어 지붕을 고쳤다.

김노경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아버지인데, 중건 당시 상량문을 추사가 쓰게 하였다. 상량문은 485 x 94cm의 감청색 비단에 중후한 해서체로 字徑 3cm 크기의 金泥로 1행에 20자씩 67행을 썼는데,²⁰⁾ 상량문 끝에 『法華經』 「化城喻品」의 ‘八方16佛名’과 『阿彌陀經』의 ‘六方佛名’을 六偉詞로 써서 佛의 힘으로 화재를 방지하고 진화하기를 기원하였다고 하는데,²¹⁾ 그 이후에는 과연 해인사에 큰 화재가 없었다고 한다.

이 대적광전은 원래 2층의 큰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대장경판전 쪽으로 큰 건물이 있으면 또 화재가 날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지을 때 지붕을 낮춰서 지었다고 한다. 또 원래 앞의 남산을 향한 좌향이었으나, 남산의 봉우리 형상이 火山이기 때문에 火氣를 피하기 위해 대적광전의 방향을 꺾어서 지금의 좌향으로 배치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대적광전 북쪽 밖 모퉁이 부근에는 두 개의 초석이 있는데, 이 초석은 중건되기 이전의 것이라고 하며, 초석의 배열 상태를 근거로 대적광전은 원래 남산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²²⁾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火의 기운을 피할 것을 강조하다 보니,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적광전이 지금의 좌향이 아닌 남산을 향한 좌향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는 해인사의 다른 건물들과 어울리지 않는 배치가 된다. 오히려 대적광전 뒤 초석들은 지금의 건물보다 규모가 큰 2층 전각이서 있었음을 증명케 하는 유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적광전 앞에는 정중삼층석탑이 위치한 안뜰과 경계를 이루는 축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축대의 끝선은 그림 8에서와 같이 대적광전 전면과 평행한 일직선이 아니고, 안뜰을 향하여 앞으로 불룩하게 휘어져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이는 마치 선실에 해당하는 해인사가 항구에서 피안의 세계로 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건축 공간 처

리 기법으로 보아 구광루에서 대적광전을 향하여 계단을 오를 때 축대선 끝 중앙 부분이 앞으로 불룩하게 나오게 처리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직선 같이 느끼게 하는, 말하자면 착시 현상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고, 또 대적광전 앞, 즉 축대 상부에서 멀리 앞을 조망할 때는 안정감과 여유감을 갖게 하는 처리 기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學士臺

학사대는 해인사 강원 공간이 있는 경학원 북측 뒤에 위치하고 있다. 학사대는 최치원 선생이 독서하며 노닐었다는 곳으로, 손수 심었다는 노거수 전나무가 있다.²³⁾ 이 학사대는 풍수지리적으로 배의 돛대를 고정시키는 아덧줄(뱃줄)을 잡아 매는 아디채로 비유한다.

5). 庭中三層石塔

정중삼층석탑의 건립연대는 일반적으로 해인사 창건당시인 9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 석탑은 구광루와 대적광전을 잇는 중심선상에서 동측으로 약 6m 비껴 서 있는데, 이 배치는 구광루 누미를 지나 대적광전을 향하여 들어 설 때 공간감을 증폭시켜주는 요인이 된다. 이 석탑의 위치에 대하여는 풍수지리적으로도 풀이되고 있는데, 탑은 인체의 심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측으로 약간 비껴 서 있다고 하기도 하며, 해인사 소형국을 이루는 좌청룡, 우백호에서 왼쪽의 청룡이 풍수지리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이를 비보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치우치게 탑을 배치하였다고도 한다. 상징적으로 탑은 배의 중심인 안뜰에 위치하여 배의 요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원래 석탑 서측으로 수각이 있었는데, 해방후에 이를 메우고 이전시켰다. 우물은 배의 밑바닥을 훼손하는 것과 같으므로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고 해서 메꾸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

20). 『修多羅』 (해인승가대학, 1990) 5호, pp. 382-386.

21). 李智冠: 『伽倻山 海印寺誌』(伽山文庫, 1992), p.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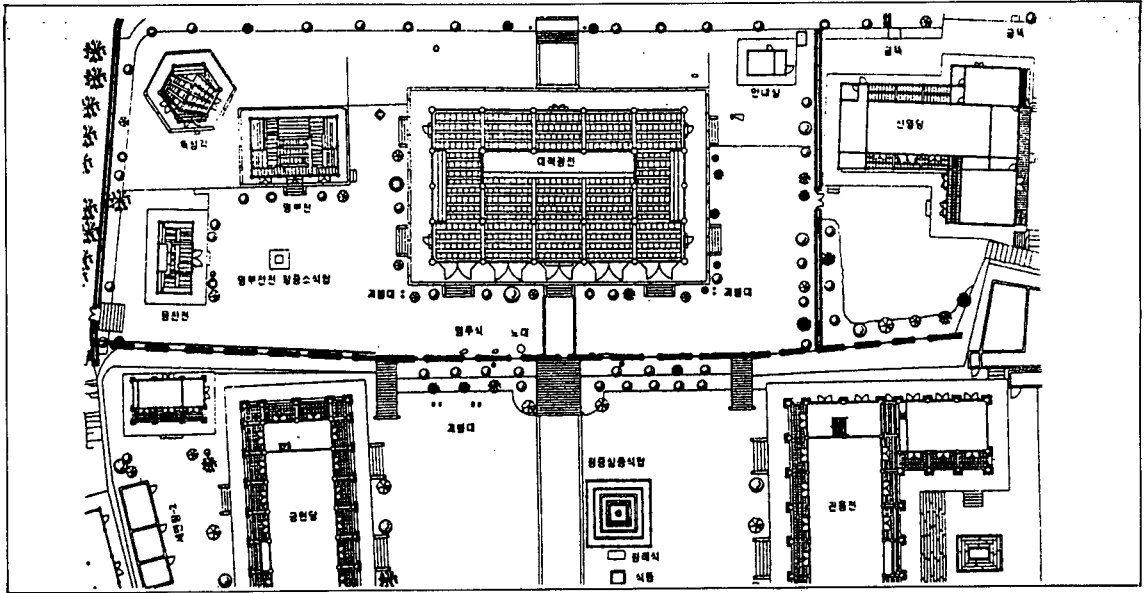


그림 8. 대적광전 앞 축대 선

들은 해인사 가람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풍수지리적인 내용과 습합되어 변경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풍수지리적인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6). 九光樓

‘九光樓’라는 이름은 화엄경 내용에 연유한다. 석가는 普光法堂을 비롯하여 모두 아홉 곳(또는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에서 화엄경을 설법하고 중생을 교화하였다고 한다. 그때마다 설법하기 전에 먼저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그 빛이 비치라고 白毫에서 광명을 내고 중생으로 하여금 믿음을 내게 하여 기쁜 마음에 설법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구광루’라는 이름은 해인사가 화엄사찰임을 보여 주는 건물이다. 구광루는 본래 법당인 대적광전과 마주보면서 법당을 올려 보도록 배치하여, 법당에는 큰 스님들이 들어가고, 대중들은 구광루에서 법당을 바라보면서 齋式과 法要를 올리도록 지은 건물이었다.

이 구광루는 축대를 끼고 자리하고 있는데, 축

대 아래인 해탈문 쪽에서는 2층, 축대위인 정중삼층석탑 쪽에서는 단층으로 보이는 정면 일곱 칸의 樓 마루집으로, 동쪽에서 두번째 칸 아래를 띄워서 통로로 개방한 일종의 樓下 진입방식을 하였다.

누하 진입방식은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건물은 음터에 자리를 잡아야 좋기 때문에 해인사의 주불전인 대적광전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도록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구광루는 대적광전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가람의 한 영역을 구성토록 하는 해인사의 寺格을 말해주는 건물로서, 누미를 통하여 단 위를 오르면 정중삼층석탑이 있는 공간이 갑자기 전개되도록 한다. 구광루는 이러한 진입 기법을 도입하여 공간을 새롭게 인지케 하고, 공간의 빛을 읽게 하는 건물이다.²⁴⁾

23). 학사대 북쪽에는 燒臺가 있는데, 해인사에서 불교의례가 있을 경우 여기서 행한다.

24). 지금의 구광루는 본래 자리에 1993년 가을에 다시 지은 것으로서, 누하 진입방식이 아니다. 구광루의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1490년 성종 연간 해인사를 확장 중수할 때 지은 종루인 圓音樓가 구광루였을 것이라고 비정하고 있다. 구광루는 순조 17년(1817) 대화재를 만나

22). 서정암: 앞의 책, pp. 33, 35.

구광루는 산문인 일주문과 제일 뒷쪽의 수미정 상탑의 중간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인사는 이 구광루를 경계로 하여 단 아래와 단 위를 연결하는 진입축이 꺾여 있다. 진입축이 일직선이 아닌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행주형국인 해인사는 정박하여 있는 배가 아니라 피안을 향하여 뱃머리를 틀면서 떠나는 움직이고 있는 배로 느껴지게 하기 위함이다.²⁵⁾ 즉, 구광루는 배의 '깃폭' 역할을 하는 건물인데, 이와 관련하여 구광루의 현판글씨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九'자에서 '樓'자로 갈수록 크게 쓰여져 있어 마치 깃폭이 방향을 트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구광루 서쪽으로 있는 적목당 남쪽의 축대는 크게 방향을 꺾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여 준다. (그림 9) 그리고 구광루에는 원래 누하진입을 하는 입구 양측 기둥에 쇠기둥이 하나씩 박혀 있었는데, 이는 쇠의 무게로 배를 잡고 있는 '삿대'를 상징한다.

7). 枯死木

일주문을 지나 봉황문에 이르는 진입로 양쪽으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약 80여 미터 되는 지점에 한 그루 枯死木이 서 있다. 이 고사목은 애장왕 3년(802)에 順應, 利貞 두 스님이 애장왕후의 難病을 고쳐준 불덕으로, 그 은덕에 보답코자 왕실에서 해인사를 開山한 기념으로 식수하였다고 한다. 이 느티나무는 1945년 枯死하여 지금은 뼈대만 서 있는데, 풍수지리적으로 배가 요동하지 않게 박은 큰 못에 비유된다.

8). 一柱門

일주문은 산행의 첫걸음을 상징하는 第一門이며, 또한 진리와 세속을 연결하는, 즉 하나가 되게 하는 문이다. 원래 해인사 일주문 양옆으로 날

소실되었는데, 순조 24년 金履載의 주선으로 중건되었다. 조선시대 영조때 화가 金允謙이 그린 해인사 그림에 보이는 구광루 남쪽 진입구의 위치는 1993년 이전의 구광루 진입구와 같다.

개처럼 담이 있었다. 이 담은 풍수지리적으로 득도 과정을 비유하는 암소를 도망 못 가게 하려는 상징적인 경계를 하고 있으며,²⁶⁾ 일주문 자체의 두 기둥은 배의 고물에 세워져 배의 균형을 잡도록 한 구조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해인사에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배치를 한 건물들이 꽤 있다. 범종각 뒤에 위치한 淸華堂(西殿) 자리에는 본래 정미소로 사용되던 창고가 있었는데, 해인사의 白虎 부분을 裨補하고 북풍을 막기 위하여 정미소는 적목당과 학사대 서쪽 등 바깥 아래로 옮기고, 이 자리에 청화당을 1984년에 새로 지었다.²⁷⁾ 또한, 관음전 동쪽 아래의 화장실에는 동판이 깔려 있는데, 그 아래로 물줄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실제로 사찰에서는 화장실을 東司라고 하여, 동쪽을 관장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람의 동측에 위치케 하고 있다.

9). 歲時

해인사에서는 매년 단오날 해인사 가람 수 곳과 남산(매화산) 꼭대기에 소금을 묻어 火氣를 진압하는 행사를 한다.

해인사 일주문과 봉황문 사이, 대적광전 앞 축대 위, 우화당 밖 서남 모퉁이, 일주문 아래 약 300미터 되는 길 옆에는 염주석이 설치되어 있어, 단오날 이 염주석에 소금을 담고 물을 부으며, 또 해인사와 극락전 중간되는 지점, 청화당 서측 축대 아래 용담선원 입구, 홍제암 입구, 수미정상탑 뒤에는 소금을 담은 항아리를 묻는다. 특히 선원대중은 단오날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 소금 봉지들을 바위 틈 곳 곳에 끼우고, 소금 항아리 수 개를 땅에 묻은 후 예불을 올린다.²⁸⁾ 매화산이라고도 불리는 남산 정상에 소금을 묻는 것은 埋火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는데, 이는 해인사가 조선조 후기에 자주 화재가 남으로서 이를 막기 위하여 火山인 남산의 火氣를 진압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25). 서정임은 앞의 책에서 해인사를 정착하는 배라고 하였으나(p. 111), 해인사는 떠나는 배인 행주형국의 형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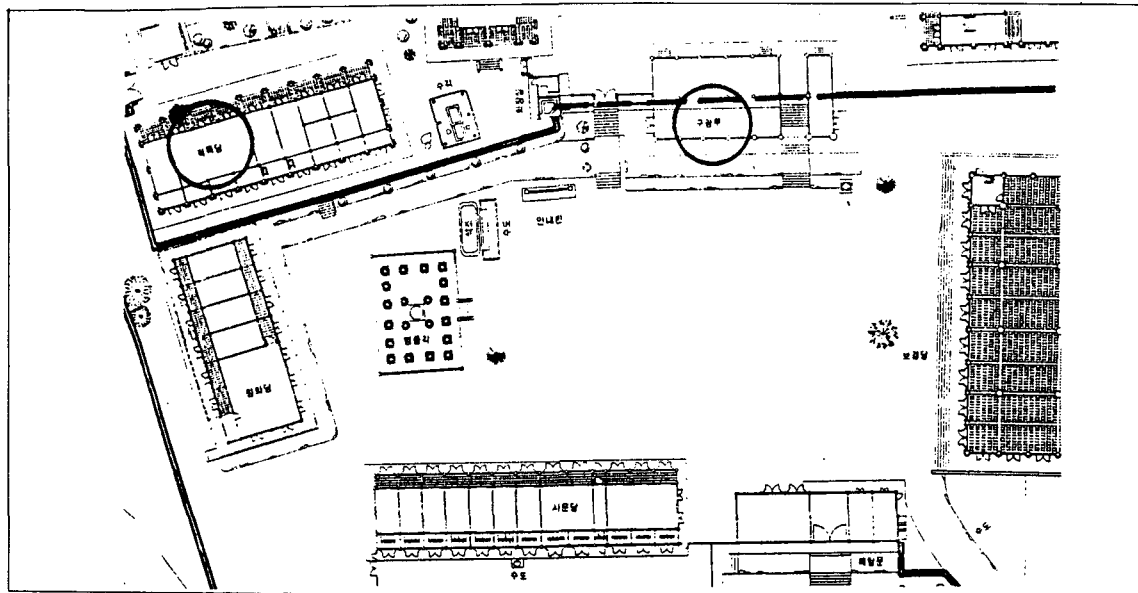


그림 9. 구광루와 적묵당 앞 축대 선

볼 수 있는 행사이다.

이러한 행사는 풍수지리적으로 연관시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교사찰이 발생지인 인도 북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그 지역의 문화, 토속신앙 등과 결합되어 “民族化”된 예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한국의 많은 불교사찰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韓國化”되어 건립된 것으로서, 해인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해인사에는 토속 신앙을 받들기 위한 건물이나 탕화 외에, 다른 사찰에서 보기 힘든 것들이 있다. 예로서,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板殿 건물 중의 하나인 수다라장 서측벽에는 童眞普眼菩薩像이 모셔져 있는데, 童眞은 神將으로서 藏經을 지켜주는 山神이기도 하다.²⁹⁾ 또, 해인사에는 다른 사찰들에서 볼 수 없는 吉祥塔, 局司壇이 있다. 길상탑은 일주문 밖 남쪽으로 약 100m 되는 비석거리에 있는데, 이 탑은 신라 진성여왕 때 전국적인 내란으로 해인사 주변에서 횡사한 사람들

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해인사 別大德 훈혁스님이 주관하여 진성여왕 9년(895)에 기문을 짓고 세웠다고 하는 일종의 鎮魂塔이다.³⁰⁾

그리고, 국사단은 천왕문을 지나 해탈문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局司란 ‘局을 관장한다’는 뜻으로서 局司大神은 土地神과 통하는데, 산신각이 사찰이 위치한 산을 외요하는 산신을 받드는 전각이라면, 국사단은 局司 즉 사찰의 局內인 해인사 結界道場만을 관장하는 護局神, 즉 道場神인 국사대신의 위패를 모신 壇을 둔 건물이다. 따라서 국사단은 산신각, 칠성각과 같

26). 『조선고적도보』 제 9권 해인사 일주문 사진에는 양옆으로 담이 있다. 1948년 일주문 앞에 계단을 새로 하면서 담이 헐려 없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엄사에는 지금도 일주문 양옆에 날개처럼 담이 달려 있다.

27). 청화당은 원래 주지스님이 쓰러던 방으로 지었다고 하나, 현재는 해인사 응접실과 三職室로 사용하고 있다.

28). 단오날 선방 스님들이 남산에 오르는 행사는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계절에 들어가 오랫동안 정진을 하여 쇠약해진 신체를 단련케 하는 방책으로도 볼 수 있다.

29). 수다라장 북측 벽에는 산신 탕화가 있었는데, 근래에 禪僧들에 의하여 철거되었다.

30). 길상탑은 1966년 탑안에서 신라말 최치원이 撰한 誌石이 내용으로서 탑의 건립 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석의 앞면에는 「海印寺妙吉祥塔記」, 뒷면에는 「雲陽臺吉祥塔記」로 題記되어 있다고 한다.

은 건물의 기능과는 다른 것으로서, 특히 해인사에서는 가람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³¹⁾

II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인사 가람의 특성을 이루는 경관구조, 진입체계, 배치 및 외부공간, 세부 내용 등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풍수지리와 연관된 상징체계를 이루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해인사가 창건 당시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開山하였다고 해석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해인사는 이미 창건 당시 나라의 원찰로 세워졌다. 그러한 만큼 좋은 땅을 골라 세웠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터에 어울리게 가람 배치를 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일종의 相地術인 풍수지리적인 내용과도 잘 습합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형국으로 볼 때, 해인사는 행주형국을 한 가야산 서남쪽 중턱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기하학적인 좌표계를 바탕으로 뒤로는 가야산 정상, 앞으로는 조산인 남산 정상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배치가 비틀어져 있고 진입축은 꺾여져 있는데, 그 꺾이는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남산을 향하는 느낌을 주도록 배치하고 있다. 이는 풍수지리적인 좌향으로 보아 조산인 남산을 간접적으로 향하게 하면서, 동시에 상징적으로 반야용선을 타고 피안으로 떠나가는 움직이는 배의 형상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법은 풍수지리적으로 화기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을 직접 바로 보지 않도록 배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또 건축 입지 및 공간적으로 보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가람을 배치시킨 해결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실제로 그림 7 등고선 형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개산 당시의 해인사 가람 일대의 지형이 그러한 건축 배치를 가능케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람 배치 및 풍수지리적 상징 체계가 서로 융합하여 가람을 총체적으로 인식케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형국으로 보아, 해인사에는 일주문에서 시작하여 해탈문, 구광루, 대적광전, 수다라장, 법보전, 그리고 그 뒤의 수미정상탑까지 중심축선을 중심으로 문과 기단, 그리고 당우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들은 불교 특유의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주형국과 결합된 여러 상징적인 의미체계를 만들며 들어서 있다. 이는 풍수지리적인 상징체계와 건축공간 및 기능 처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결국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전체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주문에서 진입하면서 조금씩 상승하며 이루어지는 좁고 긴 진입축은 그 곳을 지나서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며, 봉황문 앞의 어느 정도 트인 공간과 약간 구부러진 축, 그리고 해탈문으로 오르는 가파른 계단은 탈속의 과정을 빠르게 한다. 또 해탈문을 지나 그 앞의 너른 안뜰에 다다르면 상승되는 공간은 잠시 없어지고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게 되지만, 다시 맞은 편에 선 구광루 밑을 지나면 상승의 정도는 더 커지고 드디어 공간이 절정에 이르는 곳에서, 정중삼층석탑을 오른쪽으로 끼고 대적광전이 있는 상단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입축은 계속해서 왼쪽으로 꺾이어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건물들과 그 주변공간은 역동적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공간 처리형식은 공간을 켜를 만들며 중첩시키는 독특한 배치형식으로서 해인사 건축이 가지고 있는 중요 특성이기도 하며, 바로 깨달음의 과정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또한 해인사가 풍수지리적으로 행주형국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하여 주

31). 해인사의 국사단과 같은 기능을 가진 건물로 통도사의 가람당이 있다. 지금의 국사단은 철종 6년(1855)에 중창되었으며, 고종 3년(1866)에 중수하고, 1967년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물내 壇 위에는 局司大神의 초상화 神位가 안치되어 있고, 국사단 주련에는 국사대신이 무엇을 司護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局司大神振玄風 消災降福願皆從 洞察人間如反掌 教化群生一切同(국사대신이 현풍을 떨쳐, 재앙을 없애고 복을 내리니 모두가 따르도다. 인간세상을 통찰하기를 손바닥 보듯이 하시니, 중생 일체를 한가지로 교화하시도다.).

는 상징체계들이다.

해인사 가람의 이러한 입지 및 배치 방식은 불교 교리는 물론이고, 나아가 시대의 이상과 가치 기준과도 연관된 건축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건축이 추구하는 자연과 건축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건축의 입지 방식의 한 예를 해인사에서 볼 수 있다. 이는 크게는 해인사에 들어선 건축물들의 배치형식이나 건축물에서, 작게는 부재 및 장식물의 채용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해인사를 구성하는 배치기법 및 건축물들은 불교사상을 풍수지리적인 내용과 융화시켜 구현한 사찰로 볼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金富軾: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1970.

李重煥: 『擇里志』, 李翼成 譯, 乙酉文庫 62, 서울: 을유문화사, 1990(1971).

『朝鮮古蹟圖譜』 9권.

『修多羅』誌, 해인승가대학.

『海印』誌, 해인사.

韓國佛敎研究院: 『海印寺』(韓國의 寺刹 7), 서울: 일지사, 1984(1975).

李智冠: 『伽倻山 海印寺誌』, 서울: 伽山文庫, 1992.

이재창, 장경호, 장충식: 『해인사』, 서울: 대원사, 1993.

金仁鎬: 『海印寺 造營計劃에 대한 考察』, 청구대논문집 3, 1958.

徐貞任: 『韓國古代伽藍造景研究: 特히 海印寺造景을 中心으로』, 서울: 螢雪出版社, 1975.

李相海: 『海印寺建築圖集』, 한샘, 1994.

이용우: 『해인사의 입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87. 2.

김홍식: 「구례 화엄사 가람 배치의 미학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무애 이광노 교수 정년퇴임 기념 건축학 논총』, 1993. 8.

崔源植: 「新羅下代の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 49, 한국사연구회, 1985, pp.1-25.

崔完秀: 『명찰순례』 1, 1994, 서울: 대원사.

金鉉堧: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서울: 敎保文庫, 1991.

정각스님: 『가람. 절을 찾아서.』, 山房, 1991.

金東華: 『佛敎學概論』, 서울: 寶蓮閣, 1984.

金苐石: 『華嚴學概論』,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60.

中村 元 著, 金知見 譯: 『佛陀의 世界』, 김영사, 1990(1984).

A Study on the Symbolic Notions of Haein Buddhist Monastery from the Context of Feng-shui

Lee, Sang Ha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ymbolic notions of Haein Buddhist Monastery based on the context of Feng-shui.

Through the study, it is verified that the geographical features surrounding the Haein Buddhist Monastery are imbued with the basic layout of the monastery and the 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Haein Buddhist Monastery are structured and formed with the architecture and landscape of the monastery.

Thus, the study maintains that the siting and the arrangement of the Haein Buddhist Monastery reflect the context of Feng-shui.